조선땅에몸던진서서평선교사내한 100 년
전라도·제주병자돌본간호선교사 - 광주서과로·영양실조숨졌을때담요반장·강냉이가루 2 홉만남겨
아이 14 명입양, 과부 38 명돌봐줘…총독부나환자정관수술도막아

서서평선교사
"1934 년 6 월서서평선교사는광주에서만성풍토병과과로, 영양실조로숨졌습니다.
그녀가남긴건담요반장, 동전 7 전, 강냉이가루 2 홉뿐이었습니다.
시신도유언에따라의학연구용으로기증됐습니다. 찢어지게가난한나라조선에서
22 년간보리밥에된장국을먹고고무신을끌고다니며 '조선인의친구'가아니라그저
'조선인'으로살았던사람. 가난하고병든이웃,
나환자들을죽기까지섬겼던그사람을우리는너무쉽게잊고살아왔습니다…."

서서평(본명엘리제셰핑·1880~1934) 선교사기념사업경과보고를하던 '열방을섬기는사람들'
양국주(63) 대표가울먹였다. 17 일오후광주광역시양림동기독간호대학안오웬기념각.
'서서평선교사내한 100 주년기념예배및평전출판기념회'에모인
1000 여명이여기저기서함께눈가를훔쳤다. 독일출신의미국인서서평은 1912 년
32 살의나이에처음조선에온독신여성간호선교사.
끊임없이병고에시달리는몸을이끌고광주제중원등을중심으로전라도일대와제주도를순회하며병자를돌보고가난한여인들을가르쳤다.

◇수많은 '큰년' '작은년'에게이름을

서서평이바라본조선땅은고난으로가득차있었다. 한번순회진료여행을나서면말을타고한달이상
270 ㎞넘는거리를이동했다. 진흙탕에말이쓰러지면짐을머리에이고걸어야했다.
"이번여행에서만난여성 500 명중이름이있는사람은열명뿐입니다. 조선여성들은 '돼지할머니'
'큰년' '작은년'으로불립니다.
이들에게이름을지어주고한글을깨우쳐주는것이제가장큰기쁨중하나입니다."(1921 년내쉬빌선교부에보낸편지) 서서평은여기에만족하지않고,
한국최초의여성신학교인이일학교(현한일장신대의전신)를세워여성들을가르쳤다.
조선간호부협회(현간호협회의전신)를세우고일본과별도로세계간호사협회에등록하려애썼던이도서서평이다. 출애굽기를가르치며독립의확신을심어주려애썼다.

◇14 명의양자·양녀, 38 명의과부거둬

1929 년안식년을맞아갔던미국에서서서평은
1 살때자신을할머니에게맡기고떠났던어머니를만난다.
하지만어머니는고된선교사생활로가난이몸에밴딸을 "니몰골이부끄러우니썩꺼지라"고내친다.
평생어머니의사랑에굶주렸으면서도서서평은수양딸 13 명과나환자의아들 1 명등한국아이
14 명을입양해훌륭하게키워냈다. 과부

38 명이자립해새삶을살도록도운것도서서평이아니면할수없는일이었다.
1933 년그녀는나환자들을모아서서울로행진을벌인다.
일제총독부의나환자정관수술정책에반대하기위해서였다.
총독부앞에이르렀을때동참한나환자들의숫자는 530 여명.
결국총독부는정관수술정책을폐기하고소록도에갱생원을지어주기로약속한다.
'나환자들의어머니'라는별명은이때생겼다.

◇장례행렬나환자들 "어머니" 부르며오열

그의장례는최초의광주시민사회장으로치러졌다.
'수천의광주시민과나환자들이쫓아나와어머니를부르며오열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
한일간지는당시사설에서 "서양은생전에 '다시태어난예수'로불렸다.
백만장자처럼하인을두고차를몰고다니는선교사들,
동족의비참에눈감고개인향락주의로매진하는신여성들이양심에자극을받길바란다"고썼다.
그가한국에온지 100 년인올해에야양창삼한양대명예교수의 '조선을섬긴행복', 양국주씨의
'바보야, 성공이아니라섬김이야!'(이상 ServingthePeople 펴냄) 등평전 2 권이세상에나왔다.

기념예배참석자들은인근호남신학대캠퍼스언덕위의선교사묘역도방문했다.
서서평기념사업회회장홍정길목사(남서울은혜교회원로)가서서평의이끼낀묘비앞에서설교했다.
"서서평선교사의삶, 이것이기독교입니다. 이게원본입니다. 지금기독교는원본을잃었습니다.
믿음은늘구체적인삶의용솟음입니다. 믿음의원본을되찾게된것을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이자리로돌아와출발점에서다시시작해야합니다."